새터민 맞춤진료 2년

김종흥
국립의료원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장

새터민 입국이 2002년 1천명, 2006년 2천명을 돌파하고, 2007년에는 총 누계 1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새터민은 일반적으로 탈북 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 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 이주 북한동포, 북한출신 남한 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웠다. 하지만 1993년 6월 11일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귀순 북한 동포라는 용어가 정부의 공식용어였으나 1996년 12월 1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으로 개정하였고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 개정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배우자, 직계가족,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이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이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새터민"으로 2005년부터 통일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과 선교단체에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의 생활은 매우 힘들다. 관련기관에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새터민의 3분의 1 정도가 실업자다. 취업자도 정규직은 조금밖에 되지 않고 일용직 · 비정규직이 4분의 3을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월수입 100만원 미

만자가 대부분이다. 새터민들이 치료비 부담, 남한 체제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관 불신 등으로 적정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적절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5월 2일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 : 탈북자 지원 시민단체)' 과 연계하여 민관 협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립의료원에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를 개소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단순진료 수준을 넘어 상담을 병행하면서 맞춤진료를 제공해왔다. 병원에 치료받기위해 오시는 새터민들의 건강상태는 물론 좋지 않지만 대부분은 신체가 남한 사람들에 비해 체구가 작고 마른 체형이 대부분이고 고생을 많이 해서 몸도 부실하고 정신적 고충도 겪고 있다. 새터민들에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있으나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부분 진료를 망설이게 되고 또한 진료를 받는 새터민들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힘들어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외래에 개소한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에서 직원들의 도움으로 진료를 시행하여 왔으며 치료비는 규정에 따라 지원하였다. 센터 개소 이래 2008년 4월 11일 현재 초진환자 991명, 총 진료인원 2,853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국립의료원 직원들로 학습 동아리가 결성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뿐 아니라 일본 NHK등 해외 언론으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진료센터를 이용한 초진 환자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새터민들은 센터 이용 후 새터민들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신뢰를 보이며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일부 새터민들은 만족을 덜 느끼는 분들도 있어서 아쉬웠다. 지난 2년 동안 기억에 남는 환자는 센터 초기에 협심증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우리 병원에서 심혈관 확장 및 스텐트 삽입술 후 호전되어 아주 만족해하시던 분이 있었고 어렵게 남한에 오셔서 하나원에 있던 중 신장암 말기로 내원하셔서 사망하신 안타까운 분도 있었다. 우리 센터 이용 후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대접 받는 것 같아 좋다고 많은 분들이 감사의 뜻을 전해 올 때 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남한에 의료지원 대상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과 달리 새터민 의료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냐고 주위에서 묻기도 하는데, 새터민들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이 지원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하고 남한의 자유경쟁 사회에서 적응하기에는 남한의 의료지원 대상자들에 비해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남북 분단 시대의 희생자들인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새터민에 대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우리병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새터민 의료지원 시, '새터민에 대한 이해와 애정' 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들에 대한 다른 병원과 차별되는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질환들은 우리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저렴한 비용의 치과 치료, 종합 검진, 문신 제거 등 비용이 많이 들고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분야가 새터민 의료지원 중 꼭 필요한 분야로 생각되는데 이 분야는 추후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된다. 지난 2년간의 센터 운영을 통해 안타깝게 느꼈던 점은 남한 체제에 대한 이해부족, 불신 등으로 주위의 도움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새터민들을 많이 봤는데 하루빨리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으로 어렵게 얻은 자유와 권리를 잘 누렸으면 한다. 작년에는 외래에 새터민 상담실을 개설하여 새터민 출신으로 봉사자를 상주시켜서 새터민 환자와 병원 사이에 가교 역할을 맡아 진료센터와 새터민들이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되어 더 많은 진료와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고 2007년 6월 26일 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하여 새터민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새터민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방안"제하의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를 이용한 새터민들의 질병상태를 보면 새터민들은 주로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진료를 많이 받고, 주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여성생식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이며, 비기질적인 두통, 어지러움증, 불면, 요통 등 모호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새터민 로고

01 학습동아리 02 김종흥 과장과 새터민 진료

임상적 면담 결과 대부분 질병에 대한 검사를 원하고,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새터민들의 병원이용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남한병원에 대한 신뢰도는 81%가 신뢰하고 16.5%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의료급여 1종에 대해 무시하는 느낌(36.4%), 병의 차도가 없음(27.3%), 본인은 아픈데 이상이 없다는 진단(18.2%), 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6.1%), 병원마다 진단이 다름(각 6.1%)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병원의 이용 시 어려움으로 의사 및 간호사의 설명을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28.5%가 어렵다고 응답하고, 내 의견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것 24.5%, 진료 절차를 밟는 것 23.5%, 진료와 병원에 대한 믿음 18.5%, 진료비 지불 18%,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것 12.5% 순이었다. 국립의료원의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87.5%가 만족하고 11.5%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만족 사항은 친절함(34.9%), 의료비 지원(56%), 새터민 전담병원(34.9%), 의사들의 상세한 설명(25.7%)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터민의 남한 의료에 대한 불만은 실질적인 병원 서비스 보다 병원측과의 의사소통 등 새터민에 대한 대우로 인한 불신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향후 정신적 의사소통과 상호 공감대 형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새터민에 대한 진료경험을 통해 새터민 의료지원에 대한 모델을 정립하고 새조위, 하나원 기타 단체와 연계하여 새터민 문신제거 사업, 치과 치료지원, 정신과적 치료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새터민 호발질환, 진료 행태, 난민, 고문 피해에 대한 연구 등 새터민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할 예정이다.